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 [공통: 독서·문학]

01. ④	02. ①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7. ①	08. ③	09. ①	10. ②
11. ⑤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④	17. ⑤	18. ④	19. ⑤	20. ④
21. ②	22. ①	23. ①	24. ②	25. ③	26. ③	27. ①	28. ①	29. ③	30. ②
31. ③	32. ⑤	33. ⑤	34. ④						

[1~3] 독서

[1-3] 독서 이론,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

지문해설 : 이 글은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의 단계와 전략을 다루고 있다. 실제 인물의 생애를 쓴 글인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는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한 책을 고르고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삶 파악하기, 주체적으로 인물 평가하기,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연결해 보기의 네 단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활용, 도해 조직자, 대립 척도표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인물을 더 깊게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심화할 수 있다.

[주제]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의 단계와 전략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전기류는 인물의 생애 전부를 다루거나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일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문단에서 전기류에는 인물의 성장 과정, 업적 등의 주요 사건이 주로 시간순으로 제시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전기류에는 인물에게 영향을 미친 주변 인물과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전기류 중에서 전기문의 경우 작가의 인물 평가가 추가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의 네 번째 단계에서 책을 읽으며 인물의 삶을 이해한 후 자기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을 더 깊게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이해는 자기 성찰을 거쳐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세 번째 단계에서 글을 다 읽기 전까지는 인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최종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인물의 성공과 실패 경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파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패 경험에서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도 이해할 수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전기류는 실제 인물의 생애를 쓴 글이므로 허구적 인물을 다룬 글을 읽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인물의 삶을 맹목적으로 긍정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인물의 행적을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나'는 책을 읽으면서 주방을 묘사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자 당시의 주방 사진이 포함된 글을 찾아 읽고 당시의 열악했던 조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강한 것이지만, 그 정보를 도해 조직자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나'는 자서전을 다 읽은 뒤 A를 다룬 칼럼을 찾아 읽고, 칼럼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였다. 이는 참고 자료를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인물을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나'는 인터넷에서 A의 자서전을 찾은 후 다른 독자들이 쓴 서평을 보고 그 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읽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참고 자료를 읽고 책의 내용을 판단하여 읽을 책을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나'는 책을 읽은 후 '끈기 있는-끈기 없는'이라는 특성을 기준으로 A와 자신이 각각 어디에 가까운지 점수로 표시하였다. 이는 대립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립 척도표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나'는 책을 읽으면서 A가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한 일, 시행착오를 겪은 일 등을 순서도로 정리하였다. 3문단에서 순서도가 도해 조직자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인물의 삶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해 조직자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9] 독서

[4~9] 주제 통합, '(가)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그 한계 /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

지문해설 : (가)는 인간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그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존재, 정신 능력이 뛰어난 영장류의 존재,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른 인간의 차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또한 종 차별주의는 우리가 인간 종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 종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

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제]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한계

지문해설 : (나)는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의 기저에 행위자의 범주와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음을 밝힌 후, 이와 달리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윤리적 행동주의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설명하고 있다. 윤리적 행동주의에서는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도덕적 지위를 추론할 수 있고,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그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독립성 논변'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스미즈는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론에 따르면 윤리적 행동주의의 논의만으로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가 곧바로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제]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윤리적 행동주의와 이에 대한 반론

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혈연관계와 같은 소규모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대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혈연관계와 같은 소규모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대감이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해 다른 종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하다면 인간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에 비해 우선시할 수 없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을 종 차별주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서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 종 차별주의가 옳다는 것을 지지하려면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인간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구별된다고 주장하면,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면 영장류의 일부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므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같은 종의 구성원에게 유대감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인간 종을 우대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독립성 논변'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독립성 논변이란 어떤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존재론적으로 온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슨은 어떤 인공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자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인공 행위자와 다른 실재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3문단에서 존슨과 스미즈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가 인공 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윤리적 행동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경우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행동주의 방법론은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행동주의 방법론은 도덕적 행위자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스미즈는 다른 실재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의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스미즈는 도덕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행동에 관한 인식론적 증거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윤리적 행동주의에서는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도덕적 지위를 추론할 수 있고,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그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 행위자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형이상학적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속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형이상학적 속성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실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하

는 외적 활동이 존재론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다른 두 실재 사이의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실재가 동등한 수준의 자유 의지를 가진다면,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인공 행위자와 인간의 행동을 비교하여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공 행위자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 제시된 '표준적 입장'이란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전통적 윤리의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이외의 종은 '행위자'가 될 수 없는 동시에 '피행위자'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르면, '행위자'의 범주와 '피행위자'의 범주는 일치해야 하며, '행위자'는 인간만이 될 수 있다. 다른 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은, '피행위자'의 범주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표준적 입장'의 관점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연결된다. 다른 종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종이 '피행위자'인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인간과 같은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사례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행위자'인 다른 종과 인간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가 아니라 '피행위자'인 인간의 권리만이 침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⑤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동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례에서 '피행위자'는 다른 종이 아니라 동물의 소유권을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피행위자'인 인간에게 영향을 준 행위가 '행위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가)에서 제시된 '고차원

적 정신 능력'을 대표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은 인간 종 전체의 특징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속성 P는 어떤 실재 Z가 현재 상황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라도 실제로 인격체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성이며, 어떤 개체가 속성 P를 갖는다면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격 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속성 P'를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고 후에도 인격 종에 포함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개체가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속성 P를 갖는다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도덕적 지위의 근거라고 하였으므로 '정신 능력의 수준'은 인간 종 내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인격 종'이란 '자연 종'의 하나로서 그 종의 구성원이 전형적으로 인격체인 종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 제시된 '인공 행위자'는 '자연 종'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인격체란 합리적 판단 능력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는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을 형이상학적 속성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 제시된 '형이상학적 속성'인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은 어떤 실재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구별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 '구별된다고'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르다고'이다. '부여하다'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 '부여하기'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기'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가지다'는 '자기 것으로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갈리다'는 '쪼개지거나 나뉘어져 따로따로 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갈라지다'는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더하다'는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13] 독서

[10-13] 과학 · 기술, '어댑터의 작동 방식과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가정에 공급되는 높은 교류 전압을 소형 전기 기기가 필요로 하는 낮은 직류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어댑터의 두 가지 방식인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선형 방식은 변압기로 교류 전압을 낮춘 뒤 정류기에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평활 회로로 전압의 변동을 억제한 다음 정전압 소자를 이용해 일정한 출력 전압을 만든다. 이 방식은 구성이 단순하지만 전력 손실과 발열이 크고 변압기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스위칭 방식은 정전압 소자 대신 스위치를 제어하여 원하는 전압을 만든다. 220 V 교류 전압을 정류기와 평활 회로로 변동이 적은 전압으로 바꾼 뒤, 반도체 스위치의 주기적인 온 · 오프를 통해 변화가 심한 전압으로 바꾸어 변압기에 입력한다. 이때 스위치가 한 주기 동안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변압기의 출력 전압이 달라지며, 비교 회로가 최종 출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스위치의 온 · 오프를 조절한다. 스위칭 방식은 전력 손실과 발열이 적고 변압기를 소형화할 수 있지만, 스위치의 온 · 오프로 인해 발생한 전압 변동이 노이즈로 남아 최종 출력 전압에 포함될 수 있다.

[주제] 어댑터의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의 작동 원리 및 특성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스위칭 방식에서 스위치는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쳐 변동이 적어진 전압을 변화가 심한 전압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즉 스위치의 주기적인 온 · 오프는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 변동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2문단에 따르면, 전압의 변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평활 회로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변압기는 입력되는 전압에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이 유도되어 출력 측에 발생하는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장치라고 하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전기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고정된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든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220 V의 교류 전원인데, 소형 전기 기기들은 5 V에서 12 V 정도의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작동하므로 높은 교류 전압을 낮은 직류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교류 전원은 초당 60번 크기와 방향이 규칙적으로 바뀐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선형 방식의 정류기는 변압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낮아진 교류 전압을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압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특별한 경우'는 소형화, 전력의 고효율화를 이룬 스위칭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현재에도 선형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4문단에서 스위칭 방식은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생긴 전압 변동이 온·오프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노이즈로 남아 최종 출력 전압과 함께 출력된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형 방식은 출력 전압이 고정된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종 출력 전압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전압 변동이 남아 기기의 작동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선형 방식을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선형 방식은 전력 손실이 많다고 하였고, 스위칭 방식이 전력의 고효율화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전원 장치의 전력 효율이 높아야 하는 경우라면 선형 방식이 아니라 스위칭 방식이 적합하다. ② 3문단에서 선형 방식은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커서 주파수가 낮으면 어댑터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스위칭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소형화를 이룬 방식이라고 하였다. 어댑터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라면 스위칭 방식이 적합하다. ③ 3문단에서 선형 방식은 구성이 간단하지만, 전력 손실이 많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선형 방식은 열 발생이 과도하면 회로가 파손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 선형 방식의 정전압 소자는 남는 전력을 열로 소모한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스위칭 방식은 열로 소모되는 전력이 적다고 하였다. 발열에 의한 회로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스위칭 방식이 적합하다.

1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은 출력 전압이 고정된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서 어댑터의 출력을 바꾸려면 출력 전압이 다른 정전압 소자로 교체해야 한다. 한편 4문단에서 ㉡은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들기 위해 비교 회로를 이용하여 최종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과 같아지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비교 회로의 기준 전압을 바꾸면 그에 맞추어 최종 출력 전압도 달라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변압기는 입력되는 전압에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이 유도되어 출력 측에 발생하는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장치라고 하였다. 공급되는 전원이 직류이면 전압에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에서는 변압기의 출력 측에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4문단에 따르면, ㉡은 스위치를 사용하여 변화가 심한 전압으로 바꾼 뒤 변압기에 입력한다. 따라서 ㉡은 변압기에 출력 전압이 발생한다. ② 2문단에서 ㉠은 전원이 공급된 후, 변압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낮아진 교류 전압이 정류기로 입력된다고 하였다. 반면 4문단에서 ㉡은 220 V 교류 전압을 먼저 정류기와 평활 회로에 통과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정류기에 입력되는 교류 전압은 ㉡의 첫 번째 정류기에 입력되는 교류 전압보다 낮다. ④ 1문단에서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의 주파수는 60 Hz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의 스위치는 대략 10~500 kHz 사이의 주파수로 온과 오프를 반

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압기에 입력되는 전압의 주파수는 ㉠보다 ㉡이 높다. 그런데 3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크다고 하였으므로, 주파수가 낮은 ㉠에서 사용하는 변압기의 크기는 ㉡보다 크다. ⑤ 2문단에서 ㉠은 정전압 소자가 남는 전력을 열로 소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문단에서 에너지 저장 소자는 평활 회로에 있어 전압이 높을 때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압이 낮아질 때 방출함으로써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이 에너지 저장 소자에서 전압 변동을 크게 만드는 형태로 남는 전력을 소모하는 것은 아니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스위칭 방식 어댑터에서는 첫 번째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친 후 변동이 적은 전압이 스위치에 입력된다. 4문단에 따르면 변동이 적은 전압이 변압기에 입력될 경우, 변압기의 출력 측에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위치를 10~500 kHz 주기로 온·오프하여 변압기에 입력되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스위치가 계속 온 되어 있다면 스위치의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은 값으로 유지되어 전압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변압기를 지난 교류 전압이 5 V까지 점점 높아질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생긴 전압 변동이 온·오프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노이즈로 남아 최종 출력 전압과 함께 출력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온·오프 신호의 주파수가 100 kHz라고 하였으므로, 최종 출력 전압에는 주파수가 100 kHz인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먼저 220 V 교류 전압이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치며 변동이 적은 전압으로 바뀐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변압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낮아진 교류 전압은 정류기에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압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또한 평활 회로는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일차 측 평활 회로를 지난 전압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면서 전압 변동이 적은 상태라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기준 전압이 5 V이고, 어떤 순간에 최종 출력 전압이 4.5 V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2차 측 평활 회로를 지난 최종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에 비해 낮다. 4문단에서 비교 회로는 최종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과 같아지도록 스위치의 온·오프를 조정하는 신호를 생성한다고 하였고, 온오프비가 커지면 출력 전압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출력 전압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비를 키워야 하므로, 한 주기 내에서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스위치가 '온'인 동안은 입출력의 전압이 같아지고, '오프'인 동안은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4~17] 독서

[14~17] 사회, '오피니언 리더'

지문해설 : 이 글은 미디어 정보가 오피니언 리더를 거쳐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된다는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과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이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된 존재로 파악한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에서 벗어나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면서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정보를 창출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에 대한 비판론이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면서 이를 수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주제] 오피니언 리더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의 의의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정형적 조직인 기업과 달리 오피니언 리더가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비정형적 환경이라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이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다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했다고 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자신이 정보 제공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오피니언 리더 중 상당수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선구자라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이 미디어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위축시켰고, 이를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이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다가 미디어보다 오피니언 리더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이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했다고 하였다.

1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은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하였다.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가족,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기반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존재로 파악한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을 벗어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피니언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권자들이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미디어 이용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보 선택을 돕는 오피니언 리더가 당시 주류 미디어를 지속 가능한 공론장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④ 3문단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로 활동한다고 하였다. 오피니언 리더는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전개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⑤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보의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을'은 공공 이슈 분야의 정보 중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인 친구가 신문을 읽고 전달해 주는 것을 믿고 수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디어(신문)의 정보가 오피니언 리더인 친구를 거쳐 일반 이용자인 '을'에게 유통되는 흐름을 보여 주므로 ㉮에 부합하는 사례일 뿐, 미디어 정보가 다단계로 유통되는 점을 ㉮가 간과했다는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일반 이용자보다 미디어의 이용 동기도 높고 실제 이용량도 많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갑'은 공공 이슈와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보다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은 공공 이슈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면서 오피니언 리더가 직접 정보를 창출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을'은 패션에 관한 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빈번히 올리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보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일반 이용자가 정보 수용 방식에 있어서 항상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갑'은 패션에 대한 정보는 주위 전문가로부터 얻지만, 그 정보가 자기에 맞는지를 가려 선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패션 분야의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일반 이용자가 항상 수동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는 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가 간과했다고 주장하였다. <보기>에서 '을'은 패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빈번히 올리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으므로 패션 분야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으나 공공 분야의 정보는 친구가 신문을 읽고 전달해 주는 것을 믿고 수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이용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사례는 동일인이라도 분야별로 오피니언 리더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규범이나 이치, 체계 따위에 어긋나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우리는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쓰인 '벗어난'은 ⓐ와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속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공간적 범위나 경계 밖으로 빠져나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동아리나 어떤 집단에서 빠져나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어려운 일이나 처지에서 헤어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1] 문학

[18-21]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금환기봉'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장선빙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 남성 주인공 김희경과의 결연을 그린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여성 영웅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은 천상계에서부터 운명적 인연을 맺은 존재로 설정되며, 적강한 후 만남과 이별, 재회와 결연의 과정을 거친다. 두 주인공은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반란군을 토벌하는 큰 공을 세운 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승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선빙은 김희경을 능가하는 뛰어난 영웅으로 형상화되며, 이를 통해 여성의 능력 발휘와 사회적 성취에 대한 당대 여성 독자들의 욕구를 엿볼 수 있다.

[주제] 장선빙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

18.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해설 : '한 소년'은 과거에 급제한 후 상을 알현하기 위해 나온 장 소저를 가리킨다. 장 소저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자 설낭과 영춘은 소저를 맞이하며 '소저의 몸이 이렇듯이 귀하시니 기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설낭이 '한 소년'을 장 소저와 동일 인물로 인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설낭이 '한 소년'을 장 소저와 별개의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상은 과거에 급제한 김생과 '한 소년' '두 사람을 제수'하며 '김희경으로 춘방 한림학사를 시키시고 장수정으로 태학사를 시'킨다. 이를 통해 '한 소년'은 상이 태학사 관직을 내려 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상'이 김생과 '한 소년' '두 사람을 다 쓰고자' '제신의 뜻'을 물으니, 제신들은 '폐하가 금일 기둥과 주춧돌 같은 두 신하를 얻으시니 국가의 만복'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한 소년'은 여러 신하가 훌륭한 인재로 평가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과거장에서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이고, 또한 김희경의 이름이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명된 '김생이 옥계로 향'할 때 '한 소년이 완완히 걸어'와 '두 사람이 한가지로 어전에 이르'는 것을 볼 때, '한 소년'은 과거 시험장에서 김희경과 나란히 호명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김생은 '과거장에서

호명'된 사람이 '장 상서의 아들이라 함을 듣고 대경하여' '북해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하였으며, 김생은 '옥계로 향'할 때 '전상을 바라보며' 온 '한 소년'이 바로 그 사람임을 확인하고는 '놀라고 기뻐'한다. 이를 통해 '한 소년'은 김생이 북해에서의 일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9.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상은 '장 학사가 표문을 올려 그 부친의 신원함을 청하니' '즉시 상서의 애매함을 신원하여 청주후에 추증'한다. 이를 통해 ㉡(등과하게 된 일)을 수행한 인물인 장 학사(소저)의 간청을 받아들인 상이 ㉢(부친의 원한을 풀어 주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두 사람이 '궐문을 나올새, 길에 구경하는 사람이 그 풍도 기상을 흠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 서술을 통해,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화려하고 멋진 외양을 보고 감탄한 것이며 ㉠(김생과 소저가 함께 등과한 일)의 희소성에 놀라며 기뻐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부친의 원한을 풀어 주는 일)은 상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김희경과는 무관하게 장 소저의 요청에 응하여 상이 베풀어 준 것이다. 따라서 김희경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저가 ㉡(등과하게 된 일)을 이루고 난 후, 영춘은 ㉡(등과하게 된 일)이 ㉠(김생과 소저가 함께 등과한 일)이기도 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영춘이 ㉠을 인식한 것이 장 소저가 ㉡을 실현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건의 선후 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④ 장 소저는 ㉢(부친의 원한을 풀어 주는 일)을 하기 위해 ㉡(등과하게 된 일)을 수행한 것이며, ㉠(김생과 소저가 함께 등과한 일)은 장 소저가 ㉡을 이루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장 소저가 ㉡을 하기 위하여 김희경과 함께 ㉠을 이루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장 소저는 남복 입기를 통해 '세상에 용납'되고 '과거에 급제하'여 '부친의 원한을 씻고',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장 소저는 남복 입기를 과거 응시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에서는 장 소저가 자신이 여성임이 밝혀질 경우 '옥당 대신이 심규 아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장 소저는 남복 입기를 관직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장 소저는 '부친의 원한을 씻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남복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다 남자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장 소저의 남복 입기를 허락한 것이 아니며, 장 소저가 이를 자부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 장 소저는 '천하 사람이 다

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남복 입기를 중단하면 '옥당 대신이 심규 아녀자가' 되는 것이라며 애석해한다. 따라서 장 소저가 남복 입기를 중단하는 것을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복 입기를 중단하면서 바뀔 자신의 처지를 예상하며 애석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A]를 통해 장 소저의 남복 입기가 사 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으로 남복 입기를 시작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B]는 남복 입기를 중단하는 것을 고민하는 장 소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 중단했던 남복 입기를 재개할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A]를 통해 장 소저의 남복 입기는 '부친의 원한을 씻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복 입기는 부친을 향한 윤리적 의무와 자신을 위한 사회적 성취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두 목표 사이에서 갈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B]에서 장 소저는 '세상을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 '진실을 전달하'라는 영춘의 조언을 듣고, 남복 입기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고민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친을 향한 윤리적 의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두 목표 사이에서 갈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장 소저가 영춘의 질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주인을 걱정하는 시비 영춘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다. 따라서 이는 시비의 역할을 보호와 수발로 제한하려는 규범적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신분적 위계에서 오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장 소저가 급제한 것을 보고 영춘은 '이제 소저의 몸이 이렇듯이 귀하시니 기쁘'다며 주인의 성취에 대해 시비로서 반가운 감정을 표출한다. 이는 <보기>의 설명에서, 영춘이 장 소저에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장 소저의 '벼슬이 공경에 올라 위엄이 사해에 진동하'고, 누구나 '두려워'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영춘은 장 소저를 '상공' 대신 '소저'라고 부른다. 이는 영춘의 '본심이 스스로 드러'난 것으로, 진심에 따른 행동을 주인인 장 소저가 존중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장 소저와 시비의 주종 관계가 경직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영춘은 장 소저에게 '이런 기회에 진실을 전달하여', '규방의 아름다운 여자 되시면, 이 또한 기특한 이름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통해 장 소저가 여성임을 밝혀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선택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는 <보기>의 설명에서, 시비인 영춘이 주인인 장 소저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⑤ 장 소저는 영춘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어질다, 너의 소견이여. 밝고 높음이 오히려 내가 미치지 못하'겠다며 영춘을 칭찬한다. 이는 주인인 장 소저가 시비인 영춘이 한 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의 설명에서 그들이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을 보여 주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갈래 복합 - (가) 장옥관, '가오리 날아오르다' / (나)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다) 박지원, '공작관문고 자서'

지문해설 : (가)는 경주 남산에 밝은 달이 뜨자 오래된 석물(石物)조차 생명력을 얻은 듯 보이는 풍경을 통해 화자의 경이로움을 드러낸 현대시이다. 화자는 경주의 달밤을 바다로, 석탑의 옥개석을 가오리로 상상한다. 특히 달빛에 비친 옥개석들이 '천 마리 가오리들'처럼 솟구쳐 날아다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여, 남산을 생명력 넘치는 환상적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런 점에서 '저런, 저런'은 이 광경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과 감탄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달밤에 본 경주 남산의 경이로운 풍경

지문해설 : (나)는 자전거를 타며 접한 감각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연상된 대상들을 결합하여 고향 마을을 상상의 공간으로 형상화한 현대시이다. 차가운 구름, 입양 가는 아가, 노망든 할머니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애환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포근하게 감싸안는 시선을 보여 준다.

[주제] 삶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안고 수용하는 태도

지문해설 : (다)는 '이명'과 '코골이'의 비유를 통해 글쓰기와 글 읽기의 태도를 성찰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신만 아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태도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남이 먼저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이를 통해 글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글을 진실되게 쓰고, 독자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다.

[주제] 글을 짓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경주 남산의 달밤에 바다 생물인 '가오리'가 날아다니는 의외의 상황을 제시한 후 '아닌 밤중에 웬'이라며 의아함을 표현하면서 시상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나는 소리와 관련한 화자의 인상을 비유적으로 밝히며 시상 전개를 시작하고 있지만, 의외의 상황에 대해 화자가 의아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는 인생과 관련하여 화자가 깨달은 진실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할 뿐,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는 '저런, 저런'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환상적인 장면을 목격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현재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표현하고 있다. (다)에서도 글쓴이가

현재 깨달은 바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나)와 (다)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 않고, 인식의 변화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다)에서는 '이명'과 '코골이'와 같은 특정 상황에 빗대어 글을 짓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변화된 시대상이나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도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변화된 시대상이나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는 '가오리', (나)는 '구름', '사과'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두 작품 모두 현실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다)에서도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의 '그럴 즈음은'은 '경주 남산'에 '둥싯, 만월'이 솟은 상황을, '대낮'은 보름달의 달빛으로 남산 일대가 환해졌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럴 즈음'은 시간이 밤에서 낮으로 바뀌었음을 지각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대낮'은 '잡티 하나 없는 고요'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달빛으로 환해진 남산 일대가 매우 밝고 조용한 상태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훤히'는 남산 일대가 '꽃, 새, 바위의 내부'까지 명료하게 드러날 정도로 밝은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잡티 하나 없는 고요'한 상태에서 '당신은 고요히 자신의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며, '바닥'을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존재가 이를 수 있는 잠잠한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귀 먹먹하고 숨 갑갑하다'는 '남산 일대가 / 바다로 바'뀌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반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가)는 달밤의 경주 남산을 생명력 가득한 환상의 바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따라서 '만월'이 비치는 남산의 '뒤틀'린 소나무들 사이로 '등짝 검은 가오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석탑 옥개석들이 달빛에 비치는 모습을 환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어두운 바다의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아뜩한 기쁨'은 달밤을 나는 가오리의 '희디흰 배때기'의 '그 빛'을 본 경이로움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롭게 하늘을 비상하는 가오리의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환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는 '내 자전거'가 '골목의 모퉁이'를 돌 때 '길을 깎아내'는 것이 '큰 사과'가 '깎이'는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깎는 행위'를 매개로 '고향 마을'이라는 공간이 '큰 사과'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삼층석탑 옥개석'이 '지느러미'를 펼치는 것은, 석탑의 덮개를 바다를 유영하는 가오리에 빗대어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나)에서 '그 사람'이 '천 년 동안' '아가인' 것은, 실제로는 아가의 모습으로 천 년 동안 살 수 없는 '그 사람'의 형상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팔

뚝'이 '불거진다'는 것은 달빛 속에서 오래된 석물이 생명력을 얻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 (나)에서 '한 송이 구름'이 '손등을 덮어주'는 것은 구름이 사람의 손등을 덮어 주는 것처럼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두 표현 모두 현실의 대상을 시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형상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5.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자기만이 홀로 아는 경우'는 자기의 '이명'을 남이 알지 못하는 경우로, 이를 글을 쓰는 상황에 빗대면 자신이 지은 글의 의미를 읽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글을 짓는 사람은 자기만이 홀로 아는 것을 남이 알지 못할까 근심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道)는 털끝만한 차이로도 나뉘는 법'에는 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② '이명'이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 데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④ '말해 무엇 하겠는가'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이 쓴 글의 의미를 글 읽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⑤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 같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도 도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26. 작품의 창의적,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에서 작가는 자신이 자전거 바퀴살과 관련해 느낀 것을 시로 표현했고, 독자도 그 표현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는 작가가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바가 독자에게 잘 전달된 경우이다. [C]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작가가 전달하려는 바가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작가는 자전거 바퀴살의 움직임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나락이 빻아지는 듯한 바람 소리를 느낀다고 했다. 이것을 [C]의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작가만 느끼는 나락이 빻아지는 소리는 아이에게만 들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인 귀가 '왜앵'하고 울리는 것에 해당한다. ② ㉯에서 작가는 자전거 바퀴살에서 나는 소리에 관해 자신이 느꼈던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지만, 독자는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이것을 [C]의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작가가 느끼는 소리를 독자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이의 귀에서 나는 소리를 동무가 듣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④ ㉱에서 어떤 독자가 '바퀴살 아래'라는 시어에서 '희생'이라는 의미를 찾아 이 의미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가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것을 [C]의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자신이 코를 고는지 모르는 사람을 남이 흔들어 깨워 코를 골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⑤ ㉲에

서 어떤 독자가 '바퀴살 아래'라는 시어에서 '희생'이라는 의미를 찾아 작가에게 알리지만, 작가는 독자의 해석을 부정한다. 이것을 [C]의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이는 코를 곤 시골 사람이 자신은 코를 골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 '둥싯'은 가볍게 떠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뒤틀리고 꼬여 있던 소나무가 달빛을 받아 펴지는 이미지와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는 모습을 연결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저런, 저런'은 '등짝 검은 가오리'로 변한 듯한 옥개석의 움직임에 대한 놀라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가 바퀴에서 나는 소리를 백 마리 여치가 내는 소리처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계절의 풍요로움과 대비되는 화자의 불안을 암시한 것이 아니다. ④ '오물오물'은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시원스럽지 아니하게 조금씩 자꾸 씹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시원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앞서 제시한 일화와 관련하여 글을 짓는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일화에 대한 글쓴이의 감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박화성, '고향 없는 사람들'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불합리한 이주 정책과 자연재해로 실향민이 된 농민들의 고통과 비애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특히 고향을 지키다 급격한 상황 변화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판옥과, 이주 정책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삼룡이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 당시 농민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비애, 고향에 대한 애착과 환멸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삼룡이 판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되돌아갈 고향이 없는 농민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고된 삶을 살아 내기 위한 용기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여 준다.

[주제] 일제 강점기 불합리한 이주 정책과 자연재해로 실향민이 된 농민들의 비애와 현실 극복의 의지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삼룡이네 소식을 궁금해하던 판옥의 처는 '당초에 모든 형편이 말 아니라네'라는 판옥의 말에 '어째서 그럴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옥은 삼룡의 집이 '방 한 간 정제 한 간에다가 양철때기만 얹어서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형편없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판옥은 자신의 처에게 삼룡이 거주하는 집의 상태가 형편없

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판옥이 삼룡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네들도 다시 고향에 오려고 생각한다네마는, 자네들이 왔자 누가 하나 반갑게 자네들을 맞아줄 사람이 없겠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판옥의 처는 편지를 받아 달리다시피 집으로 뛰어온 판옥을 보며, "어디서 왔소? 아마 덕근 아배한테서 왔는감만, 저리도 좋아하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판옥의 처는 집에 들어오는 판옥을 보고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짐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판옥의 처는 삼룡의 '편지를 접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판옥에게 "아이고 갑갑하구만. 원 얘기나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시오그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판옥의 처는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삼룡이네 소식을 곧바로 전달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갑갑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⑤ 삼룡이네가 '안즉 땅이 덜 풀려서 일을 못'한다는 판옥의 말을 들은 판옥의 처는, '여기는 봄도 한창인디 안즉 땅이 안 풀리다니'라며 땅이 풀리지 않아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삼룡이네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9.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C]를 통해, 판옥의 처는 이주한 삼룡에게 집과 논은 물론 소와 농사 기계까지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D]를 통해 삼룡이네가 '장난감같이 생긴' 농기구 몇 개만 지급받았음이 드러난다. 즉 판옥의 처가 알고 있던 정보 [C]는 삼룡이네의 실상 [D]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를 통해, 판옥의 처는 덕근 어메와 덕근이 남매가 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에 제시된 판옥의 말에는 덕근 어메와 덕근이 남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작년에 떠들썩했던 '이민'과 '기부'에 대한 판옥의 냉소적 반응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② [B]에는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판옥의 자조적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C]에는 판옥의 처의 삼룡이네 형편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나 있을 뿐, 판옥이 자조적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D]에는 삼룡이네가 지급받은 보잘것없는 농기구와 그러한 농기구마저도 비싼 값을 치러야만 했다는 내용이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A]에는 삼룡이네가 처한 딱한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고, 삼룡이네 식구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판옥 처의 모습만 확인할 수 있다. ⑤ [E]에서 판옥이 '당구 삼 년에 음풍월'이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B]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책망하는 관용 표현이 없다.

3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발신인은 판옥, 수신인은 삼룡이다. ㉡에서 판옥은 삼룡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맞아 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향이 참혹한 곳이 되었으며 자신도 고향을 떠날 것임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삼룡은 ㉢에서 '자네의 만지장서를 받고' '귀향 사건을 중지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으로 인해 삼룡이 귀향

하겠다는 결정을 번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발신인은 삼룡, 수신인은 판옥이다. ㉠을 받은 판옥이 삼룡이네의 형편을 알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같이 없는 놈'은 어디 가도 별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삼룡의 처지에 대해 동정심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판옥과 삼룡 가족 사이의 긴장감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의 발신인은 삼룡, 수신인은 판옥이다. ㉢에는 삼룡이 귀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전했다는 정보가 담겨 있지만, 회사와 판옥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은 발신인인 삼룡이 수신인인 판옥에게 자신의 가족이 이주 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는 편지이므로, 발신인 가족의 안부를 수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수신인 판옥은 삼룡의 소식을 듣고 씁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수신인 판옥의 근심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수신인 판옥이 몰랐던 발신인 삼룡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판옥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면서 겪는 갈등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 ㉡은 수신인 삼룡이 알지 못했던 변해 버린 고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룡은 귀향하려던 결정을 번복하게 된다. 하지만 ㉡으로 인해 삼룡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면서 겪는 갈등이 심화된 것은 아니다. ㉢은 삼룡이 판옥에게 쓴 편지로, 삼룡이 판옥의 편지를 읽고 귀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어디든지 살아가는 곳을 고향으로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수신인 판옥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면서 겪는 갈등을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판옥이 삼룡에게 '또 모이게 될지 누가 알 것인가?'라는 말을 남긴 것은 고향에서 쫓겨난 자신과 삼룡이 언젠가 몸 성히 살아남아 우연히 만날 날을 기약한 것일 뿐 삶의 터전을 삼룡과 함께 마련하기 위한 용기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삼룡과 판옥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해 보자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판옥이 삼룡에게 고향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고향에 대한 환멸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판옥이 고향을 떠나는 상황을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참혹'하게 변한 고향에 머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관으로 이주하려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판옥은 삼룡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향을 떠나 타관으로 이주하게 된 비참한 처지에 대해 언급한 다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여 편지를 더 쓰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고향에서 이주한 후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삼룡 또한 판옥의 편지를 읽고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판옥의 편지 내용과 이를 읽은 삼룡의 반응은 모두 고향을 상실한 인물들이 느끼는 비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삼룡은 판옥에게 보낸 답장에서 판옥과 자신을, '고향을 박차 버리고 나오는 영웅'이라면서 앞으

로 어디든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을 '고향으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이는 어딘가에 뿌리내릴 수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 내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 시가 - 이진유, '속사미인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사대부인 이진유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지은 유배 가사이다. 유배 가사는 보통 '연군의 정서'와 '유배 생활의 시련'을 중심으로 하는데, 「속사미인곡」은 다른 유배 가사에 비해 유배 생활의 시련이 보다 자세히 서술되고 있어, 조선 후기 가사의 사실화·서사화 경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양미인곡' 즉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계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배의 노정과 유배객의 생활 및 심정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정철의 '양미인곡'과 차이가 있다. 작품은 '서사-본사-결사'로 구성되며, 지문에는 본사의 일부와 결사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와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의 사랑을 회복해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나타난다.

[주제] 유배 생활의 고통과 연군의 정서

3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일월 같은 우리 임'은 임을 해와 달이라는 자연물에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아니 살피실까'는 임이 자신의 정성과 충심을 헤아려 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와 믿음을 의문형 표현으로 강조한 것이지, 화자와 임의 정서적 유대감이 심화됨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객회는 쓸쓸'하다는 화자의 적적한(조용하고 쓸쓸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은 유배지에서 새로 마련한 '거처'가 '격식은 못 갖췄으나' '정갈'하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몸 굽히고 펴기 이제야 편안'한 화자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불편함이 완화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뉘 금할꼬'라는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중국 주나라의 문왕이 기산 부근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어진 정치를 펼친 고사를 바탕으로 상황을 가정하여, 만약 세상에 어진 정치가 펼쳐지면 자신이 먼저 쓰이거나 어진 정치의 혜택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꿈'은 화자가 유배지에서 꾸는 것으로, [A]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임과의 재회를 꿈속에서 실현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생시로 삼을런가'는 바로 앞

의 '어느 날 이내 꿈을'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화자가 꿈에서 경험한 임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임과의 만남을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애절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잎으로' 지은 '옷'과 '연꽃으로' 지은 '치마'는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지, 꿈에서 임에게 전할 물건이 아니다. ② '눌 위하여 단장할꼬'는 임과 이별하여 임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현실에서 누구를 위해 단장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③ '말소리 울리는 듯'은 꿈속에서 화자가 임과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꿈에서의 경험이 현실에서도 이어지는 착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귓가에 완연하고'는 꿈속에서 들은 임의 목소리가 잠 깬 후에도 생생히 떠오른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 임이 현실에서 화자를 위로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유배형을 당한 화자가 '옛 허물'을 헤아리며 '망령됨'이 죄라고 밝히는 것에서 화자의 심적 고통을 엿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망령됨도 내 죄이오나' 다음에 이어지는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로 볼 때, 화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른 동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유배지에서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는 한편 '고각'에 있는 하사받은 책을 염려하는 것은, 학문을 닦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유배지인 낯선 섬에서 '다시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임금의 배려를 바라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내 신세 홀몸'임을 임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염원하는 것은, 임금이 화자의 처지를 살펴 유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과 관련이 있다. 즉 임금이 새로운 정치적 판단을 통해 화자의 유배형을 종결해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을 부채'는 화자, '광주리'는 유배형 또는 유배지를 빗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화자가 '광주리'에서 벗어날 때를 몰라 한탄하는 것은, 유배객으로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느끼는 불안감과 연결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② 38. ③ 39. ④ 40. ① 41. ④ 42. ② 43. ⑤ 44. ②
45. ⑤

[35~39] 언어

[35~36] 국어의 색채어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어에서 발달한 '색채어'의 개념과 통시적·공시적 특성, 그리고 색채어의 다양한 형성 방식과 그에 따른 의미 분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색채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는 현대 국어의 색채어 형용사와 명사의 예를 제시한 뒤 자음 교체나 모음 교체로 단어의 짝이 형성되기도 함을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색채어 형용사 가운데 어근에 '-아/어 ᄒᆞ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로 이어졌음을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푸르다', '누르다/노르다' 역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비통사적 합성, 연결 어미 '-디'의 사용, 접사('새-/시-', '연-')의 결합, 자음 및 모음 교체(경음·격음/평음, 음성/양성 모음) 등을 통해 색채어의 밝기, 선명함, 짙고 어두운 정도 등의 의미가 다채로워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색채어의 형성 방식과 그에 따른 의미의 분화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접사 '연(軟)-'은 색채어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덜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한다고 하였으며, '연푸르다'와 '연초록'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보라'에 쓰인 접사 '연-'을 색채어 형용사 어근에 결합하면 빛깔이 덜 선명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색채어는 특유한 빛깔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였다. '검다'와 '붉다'는 모두 색채어이므로 '검붉다'는 서로 다른 두 색채어의 어근('검-', '붉-')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1문단에 따르면, '짙다'는 특유한 빛깔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채어가 아니다. 따라서 '짙붉다'는 서로 다른 두 색채어의 어근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예로 들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시뻘겋다'의 '시-'와 같은 접사는 색채어 형용사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더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색채어 명사에 '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발갛다'의 경우는 더 짙은 느낌을 주는 단어 짝으로 평음 'ㅂ'이 경음 'ㅃ'으로 교체된 '빨갛다'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파랑'은 이와 같은 자음 교체를 통해 더 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의 짝을 찾기 어렵다. ⑤ '파랗다/퍼렇다'의 짝에서는 양성 모음 'ㅏ'가 음성 모음 'ㅓ'로 교체된 '퍼렇다'가 더 어두운 느낌을 준다. 반면 '붉디붉다'는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색채어 어근을 반복한 말로, 모음 교체를 통해 더 어두운 느낌을 주는 단어 짝을 찾을 수 없다.

36. 용언. 어휘의 활용

정답해설 : <학습 활동>에 따르면 먼저 단어의 불규칙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라면 모음 교체를 보이는 단어의 짝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프르고(기본형: 프르다)'에서 비롯한 현대 국어의 색채어 '푸르다'는 3문단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푸르다'는 모음 교체를 보이는 단어의 짝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④, ⑤ ⓐ '누러ᄒᆞ도다(기본형: 누러ᄒᆞ다)'에서 비롯한 현대 국어의 색채어 '누렇다'는 15세기 국어의 색채어 형용사 어근에 '-아/어 ᄒᆞ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다. 3문단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색채어에서 비롯한 말은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 '누렇다'는 '누렇다/노랗다'와 같이 모음 교체를 보이는 단어의 짝도 있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 '거므니(기본형: 검다)'에서 비롯한 현대 국어의 색채어 '검다'는 규칙 활용을 하므로 ㉠에 해당한다.

37. 담화의 특성 - 통일성, 응집성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이 언어적 맥락에 따라 '특정한 한 사람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와 '특정한 한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에서 "현서가 지후한테서 자기가 합격했다고 들었대."의 '자기'는 문맥상 '현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지후'를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특정한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기의 올해 목표 중 하나였대.'에서 '자기'는 앞선 발화에서 '학급의 봉사 활동 대표로 지원했'다고 언급된 '민희' 한 사람만으로 한정된다. ③ '자기에게 손해인

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더라.'에서 '자기'는 앞선 발화에서 '늘 앞장서서 친구들을 챙'긴다고 언급된 '승우' 한 사람만으로 한정된다. ④ '순호가 초조해하며 자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에서 '자기'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순호' 한 사람만으로 한정된다. ⑤ '정수는 윤주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던데.'에서 '자기'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정수' 한 사람만으로 한정된다.

38. 국어의 음운 변동 - 교체

정답해설 : '한자어 'ㄹ' 뒤 경음화' 현상은 세 가지 조건(⑴ 한자어이고, ⑵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⑶ 첫음절의 종성 'ㄹ' 뒤에 'ㄷ, ㅅ, ㅈ'이 연결)이 갖추어지면 예외 없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설득(說得)[설뜩]'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단어이다. 반면 '월권(越權)[월꿘]'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첫음절의 종성 'ㄹ' 뒤에 이어지는 자음이 'ㄱ'이므로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별건(別件)[별껀]'과 '율법(律法)[율뻡]'은 둘 다,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ㄹ' 뒤에 이어지는 자음이 각각 'ㄱ', 'ㅂ'이므로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② '발전(發展)[발쩐]'과 '결심(決心)[결씸]'은 둘 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둘 다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단어이다. ④ '율격(律格)[율껵]'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ㄹ' 뒤에 이어지는 자음이 'ㄱ'이므로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출발(出發)[출발]'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⑤ '탈법(脫法)[탈뻡]'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ㄹ' 뒤에 이어지는 자음이 'ㅂ'이므로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골격(骨格)[골격]'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39.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의 안긴절 '내가 멍이와 친구처럼 지낸'에는 서술어 '지내다'가 반드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멍이와 친구처럼')가 있다. ㉢에는 '공원'을 꾸미는 관형사절 '넓은'과 서술어 '놀자'를 꾸미는 부사절 '재미있게'가 안겨 있다. 그런데 '넓은'과 '재미있게'에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가 없다. 따라서 ㉠과 ㉢에는 각각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 '두 달이'는 '되었다'의 보어이며, 여기에는 '달'을 꾸미는 관형어인 '두'가 있다. ㉡에서 '가장 먼저 수행할 과제로'는 '정했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여기에는 '과제'를 꾸미는 관형어인 '가장 먼저 수행할'이 있다. ② ㉠의 '내가 멍이와 친구처럼 지낸'은 의존 명사 '지'를, '두'는 의존 명사 '달'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형어이다. 반면 ㉢의 '공원에서', '나랑', '재미있게'는 서술어 '놀자'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③ ㉠의 관형사절 '내가 멍이와

친구처럼 지낸'에는 주어 '내가'가 있다. ㉡의 명사절 '멍이 장난감 고르기'에는 안긴절 속의 서술어 '고르기'의 목적어인 '멍이 장난감'이 있다. ⑤ ㉡의 명사절 '멍이 장난감 고르기'에서 '멍이'는 뒤따르는 명사 '장난감'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반면 ㉢의 관형사절 '넓은'과 부사절 '재미있게'에는 관형어가 없다.

[40~45] 매체

40.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인터넷 방송의 첫 장면에서 하단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라는 자막을 제시하여 방송에서 다룰 중심 화제를 안내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롱디리'의 질문에 진행자는 오늘 방송에서 소개되는 모든 자료를 '오늘의 똑똑' 채널 게시판에 올려 두겠다고 말하긴 했으나, '방송이 끝나고' 올려 두겠다고 했으므로 방송 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 ③ 진행자는 '더 보기'란에 □□ 문화원 누리집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올려 두겠다고 예고했으나, 방송 중에 실제로 하이퍼링크를 공유한 것은 아니다. ④ 자료 화면을 상하로 분할하여 제시하지 않았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는 자료 화면에서 진행자 화면으로 전환하여 대답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진행자 화면에서 알아볼 내용을 언급한 뒤 자료 화면으로 전환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화면으로의 전환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가)에서 진행자가 어휘의 형성과 관련해 언급한 표제어는 'K-'로, 한국 관련 어휘들이 향후에도 형성되어 등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3번 카드에서 어휘의 사회·문화적 의미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K-'가 아니라 '막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진행자가 '2000년대에 1개, 2010년대에 8개, 그리고 2020년대에는 40개 이상'의 한국어 및 한국 관련 어휘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말한 내용을, (나)의 1번 카드에서 막대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진행자가 방송 도입 부분에서 '혹시 '먹방'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것을 아시나요?'라고 말한 내용을, (나)의 시작 부분인 1번 카드에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진행자는 '막내'라는 어휘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정의를 비교하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의미('K-pop 그룹의 가장 어린 구성원')도 제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나)의 3번 카드에서는 그림과 문자를 활용해 제시하였다. ⑤ (가)에서 진행자가 시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자료 화면에 명시한

어휘들이 (나)의 2번 카드에서는 '친족', '장소', '음식'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

4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가)에서 '꿈나무'는 '앞으로 더 많은 어휘가 등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며 어휘의 추가 등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꿈나무'는 '2020년대에는 40개 이상의 한국어 및 한국 관련 어휘가 새로 등재되'었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자신이 뉴스에서 얻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2021년도에만 26개가 등재'되었다는 정보를 보충하고 있다. ③ '강물'은 진행자에게 '아까 화면에서 본 '언니'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맞나요?'라고 묻고 있다. 이는 '언니'도 진행자가 앞서 언급한 '막내'의 경우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의미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제시된 사례에 해당할 것 같다는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진행자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강물'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다른 친족어들의 의미도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어요.'라고 하며 친족어들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⑤ '햇살가득'은 '우리말에 자부심을 갖게 한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라고 하며 방송 내용의 의의를 평가하고, '친구들에게 방송 내용을 알리기 위해 카드 뉴스를 만들어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려고요.'라고 하며 이 방송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 하고 있다.

43. 담화의 기능

정답해설 : ㉤의 '되었으면'에서 '-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나타낸다. 즉 방송이 실제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었으면'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함을 나타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보면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자료를 보는 행위와 설명을 시작하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짐(동시성)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변할 수 있습니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하는 의존 명사 구성인 '-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어휘 수용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의 '좋겠습니다'에서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이 해당 어휘를 직접 찾아보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완곡하게 나타내고 있다. ④ ㉣의 '유익했나요?'에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나요'를 사용하여 방송 내용이 유익했는지에 대해 시청자를 높이며 묻고 있다.

4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경은'은 '둘레길 주변의 유명한 곳으로 △△ 공원이 나와 있어.'라고 하며 (가)의 '주변 명소(△△ 공원)'라는 정보에 주목한 후, '거기 코스모스가 아름다워서 찾는 사람이 많은 곳이야. 둘레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여기도 들러 보면 어떨까?'라고 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경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나'는 '검색으로 활동 당일 날씨를 찾아본 결과야. 기온과 자외선 지수가 모두 높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코스에 식수대도 없어. 모자랑 물을 챙기자.'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유나는 활동 당일 기온과 자외선 지수가 모두 높다는 날씨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가)의 '유의 사항(식수대 및 식수 구입처 없음.)'에 주목하여 모자와 물을 준비물로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정보 확인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다. ③ '경은'은 (가)의 '내 주변 코스'에 주목하여 '숲속 둘레길'에 비해 '해안 둘레길'이 평탄하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완만한 '해안 둘레길'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여 '해안 둘레길' 코스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안 둘레길'은 '숲속 둘레길'에 비해 소요 시간이 약 30분 더 길다. 따라서 '경은'이 소요 시간이 짧은 코스를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민수'는 (가)의 '전체 경로 안내'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에 주목하여, '공원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데, 우선 쉼터에서 쉬고 공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멀리 있는 공원까지 가기 전에 쉼터에서 휴식함으로써 체력을 안배하자는 것이지,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 ⑤ '민수'는 (가)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소개된 '길동무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벽화 마을에서 '길동무 프로그램'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대학 탐방을 갔는데 ~ 정말 좋더라고.'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환기한 것이지,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한 것은 아니다.

45.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유나'가 '예약 메시지' 기능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추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활동 당일 챙겨야 할 준비물에 대한 메시지를 예약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은'은 '투표함' 기능을 활용해 둘레길 근처에서 방문할 음식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② '민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해 '지현'이 요청한 프로그램 신청 내역을 전달하고 있다. ③ '유나'는 '답장' 기능을 활용해, 안전을 이유로 경사가 완만한 해안 둘레길을 선택한 '경은'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 ④ '유나'는 날씨도 미리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경은'의 말에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활동 당일의 날씨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